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2023년 6월 30일 | 선임연구원 조영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488천 km ² 	인구 624만 명 (2022 ^e)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대외정책 중국과의 협력관계 확대 
GDP 780억 달러 (2022 ^e) 	1인당GDP 12,500달러 (2022 ^e) 	통화단위 Manat 	환율(U\$기준) 3.50 (2022) 

-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 이란, 카타르에 이어 세계 4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보유국으로 2020년 기준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7.2%(13.6조 m³)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임.
- 2022년 2월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의 사임 후 그의 장남인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가 3월 조기 대선에서 73%의 득표율로 승리하여 대통령에 당선됨.
- 투르크메니스탄은 2020년 WTO 옵저버국으로 가입했고, 정회원 가입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에너지 및 투자 등에서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러시아와도 2016년부터 중단되었던 천연가스 수출을 2020년에 재개하는 동시에 에너지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해 중국으로 천연가스 수출을 지속하여 안정적인 수출망을 갖추고 있으며, 카스피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건설을 통해 향후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2. 7 수교 (북한과는 1992. 1. 10)

주요협정 외교관여권사증면제협정, 공동협력위설립협정(이상 '08), 항공협정('09), 과학기술협력협정('15), 이중과세방지협정('16)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69,000	8,833	8,543	자동차부품, 의약품, 자동차, 화학기계
수입	5	31	35	식물성한약재, 가방, 의류, 타이어

해외직접투자현황(2023년 3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6건, 959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0.9	-3.4	-2.9	4.6	1.8
소비자물가상승률	13.3	5.1	6.1	19.5	11.5
재정수지/GDP	-0.2	-0.3	-0.1	0.4	0.9

자료: IMF, EIU

2022년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1.8%의 경제성장 기록 추정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각국의 방역 강화(봉쇄 포함)는 산업생산 감소와 그에 따른 에너지 국제수요 위축으로 이어졌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대표적 수출품목인 천연가스의 국제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에 직면한 결과 2020년 -2.9%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2021년에는 방역 완화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로 에너지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와 전년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까지 더해져 4.6%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 2022년에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상품수출액 증가(전년 대비 28.0% 증가 추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산 천연가스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민간소비는 물론 국내총투자도 전년 대비 감소(GDP 대비 비율이 2021년 38.7% → 2022년 29.0%)하여 전년보다 대폭 하락한 1.8%의 경제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투르크메니스탄의 FDI 유입액은 2016년 22.43억 달러에서 2018년 19.97억 달러, 2021년 14.53억 달러로 계속 감소하였음.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FDI 유입액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1] 중앙아시아 각국의 FDI 유입액 추이(2016~21년)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중앙아시아 5개국	13,381	8,797	7,023	8,499	6,272	7,000
카자흐스탄	8,514	4,714	3,898	3,284	3,675	3,175
키르기즈	616	-107	144	404	-402	248
타지키스탄	345	307	360	364	107	84
투르크메니스탄	2,243	2,086	1,997	2,129	1,169	1,453
우즈베키스탄	1,663	1,797	625	2,316	1,726	2,044

자료: UNCTAD

국내경제

식료품 가격 급등 등으로 2021~2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기록 추정

- 2021년에는 수입 제한 조치와 농업 생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인 19.5%로 상승하였으며, 2022년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소비재 및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여 역시 두 자릿수인 11.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IMF에 의하면 2023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 자릿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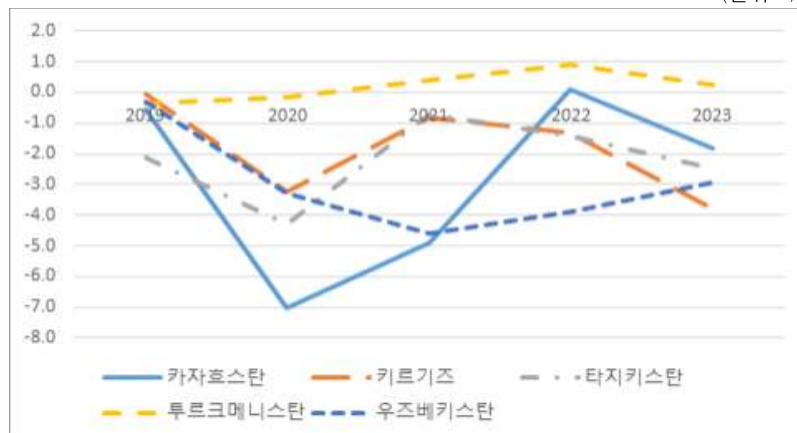
재정수지는 국영 에너지기업의 수익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소폭의 흑자 지속 추정

- 재정수지는 생필품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비용 지출 등으로 2015~20년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정부 보조금 축소와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국영 에너지기업의 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GDP 대비 0.4%의 흑자를 회복하였음.
- 2022년에는 천연가스 국제가격이 5월과 8월에 각각 크게 상승함에 따라 국영 에너지 기업으로부터의 세수가 증가*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율이 0.9%로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하였음.
- 2022년 겨울의 온화한 날씨로 난방 수요가 줄면서 천연가스 가격은 2023년 들어 크게 하락하였으나, 2023년 여름 전 세계적인 고온현상으로 냉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 생산용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다. IMF는 이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의 재정수지가 2023년에도 비록 전년보다 감소한 규모로나마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2022년 중앙아시아 5개국의 재정수지를 비교하면, 에너지 수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이 상반기의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국영 에너지 기업의 수출 수익 증가로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에너지 비수출국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은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1] 중앙아시아 각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 상 수 지	839	902	-3,798	-1,889	2,539
경상수지/GDP	1.7	1.7	-7.1	-2.9	3.3
상 품 수 지	7,370	7,551	3,302	5,313	9,053
상 품 수 출	9,760	10,545	6,544	9,349	11,964
상 품 수 입	2,390	2,994	3,242	4,036	2,911
외 환 보 유 액	14,696	14,274	15,962	17,518	18,411
총 외 채	11,276	6,405	5,252	5,250	4,709
총외채잔액/GDP	23.2	12.1	9.9	8.2	6.0
D.S.R.	10.5	10.5	17.4	13.5	13.0

자료: IMF, EIU

2020~21년에는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으로 경상수지 적자 기록, 2022년 에너지 국제가격의 상승으로 경상수지 흑자 전환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에너지 국제가격이 하락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수출도 타격을 받아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무려 56.3% 감소한 결과 경상수지는 2020년 GDP 대비 -7.1%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2021년에는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과 기저효과로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60.9% 반등하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도 -2.9%로 개선됨.
- 2022년에는 천연가스 국제가격이 5월과 8월에 각각 급등함에 따라 천연가스 수출액이 증가하고 상품수지 흑자도 90.5억 달러로 전년(53.1억 달러) 대비 70.4% 급증하여 경상수지가 GDP 대비 3.3%의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상품교역액은 148.8억 달러로 전년(133.9억 달러) 대비 11.1% 증가한 것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135.4억 달러)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됨.
-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교역상대국은 자국산 천연가스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 민족 및 언어에서 동질성이 높은 튀르키예임
- 주요 수출품은 천연가스로 중국이 최대 수출상대국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 장비, 차량 등으로 튀르키예가 최대 수입상대국임.

대외거래

[그림 2] 투르크메니스탄의 교역액 추이(2019~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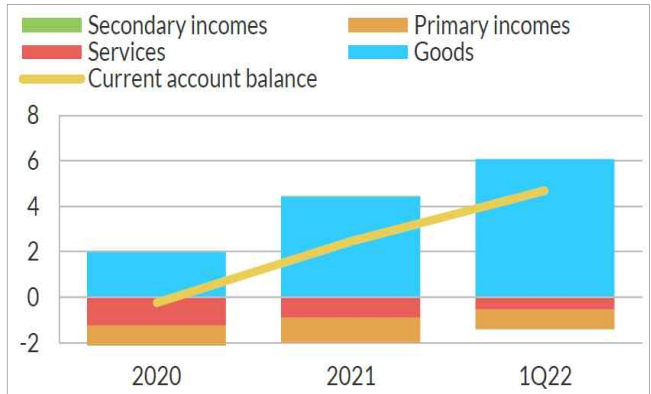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EIU

[그림 3]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상수지 추이(2020~22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Fitch

외채상환능력

2022년에도 총수출액 증가로 안정적인 외채상환능력 지표 유지 추정

- 2022년에는 천연가스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총수출액 및 GDP 규모 증가로 주요 외채상환능력 관련 지표가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 총수출이 전년 대비 24.1% 증가하여 총수출액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21년 38.4%에서 2022년 27.7%로 개선되고,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2021년 13.5%에서 2022년 13.0%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GDP 규모가 2021년 644억 달러에서 2022년 780억 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21년 8.2%에서 2022년 6.0%로 역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15.7개월분으로 매우 안정적이며, 단기외채잔액 규모는 외환보유액의 0.1%에 불과한 수준으로 추정됨.
- Fitch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대외채무 중 중국에 대한 채무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2022년 기준 일본에 대한 대외채무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다자기구에 대한 채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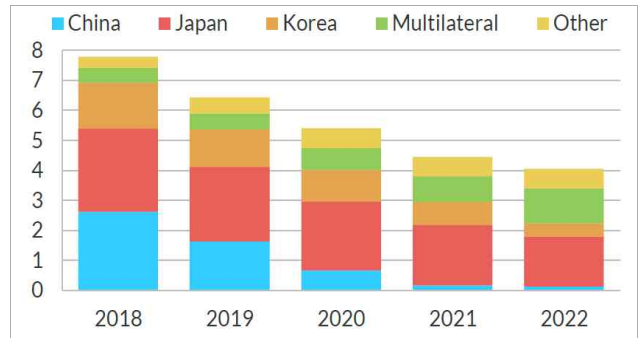
외채상환능력

[그림 4] 투르크메니스탄의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
단위: %



자료: Fitch

[그림 5]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별 대외채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Fi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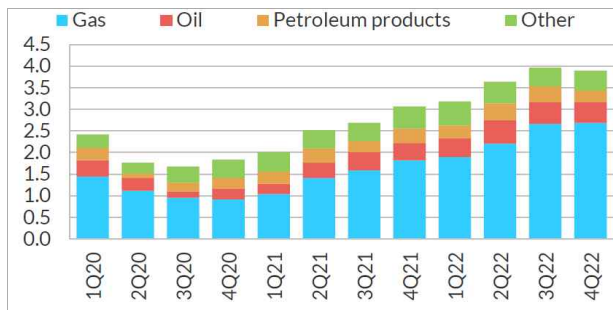
구조적취약성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과도하게 높은 경제의존도

- 천연가스 수출이 2022년 기준 전체 수출의 78.1%를 점유하여, 에너지 자원의 국제가격 변동에 국가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천연가스 이외 품목의 수출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섬유 1.6% 등)임. 따라서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 시 수출이 급감하고 정부 재정이 악화될 위험성이 잠재해 있음.
- 정부는 에너지 산업 외에 면화를 토대로 한 섬유 산업 발전, 카스피해 연안의 관광 산업 발전 등 산업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는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됨.

[그림 6]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수출품과 수출액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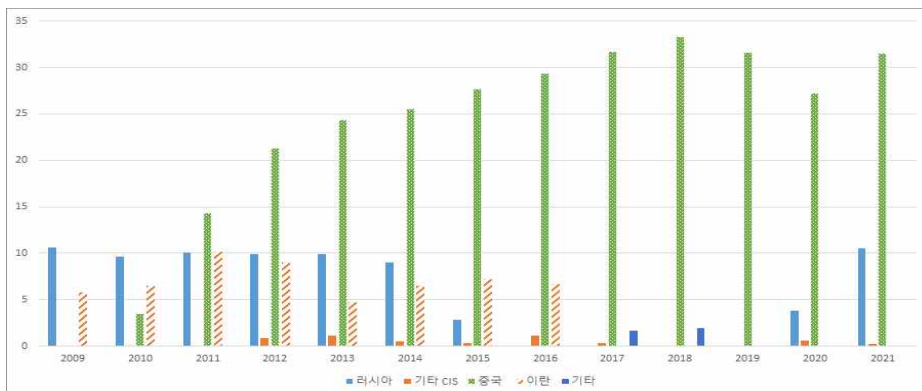
자료: Fitch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지속

-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 상품수출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천연가스의 최대 수출상대국으로, 2021년에는 전체 수출 421억 m³ 가운데 중국으로 315억 m³, 러시아로 105억 m³를 수출하였음(BP, 2022).
- 2009년에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전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의 건설 이후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의 대 중국 수출의존도가 급상승하였음.
- 한편, 중국 국영 에너지 기업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PC)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가스전인 갈키니쉬 가스전과 바그티야릭 가스전 개발에 투자하고 있음.

[그림 7]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별 천연가스 수출 현황(2009~21년)

단위: 십억 m³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2022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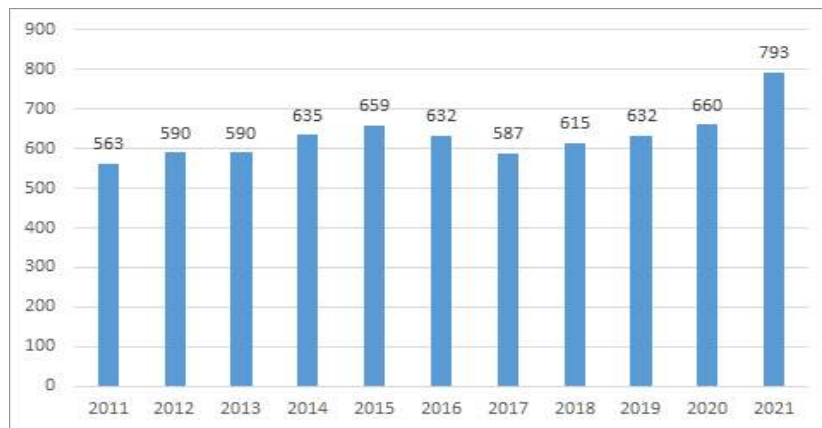
성장잠재력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활용한 가스화학 산업 개발 추진

-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2020년 말 기준 13.6조 m³로 전 세계 확인매장량의 7.2%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세계 4위 규모임.
- 천연가스 생산량은 2021년 기준 793억 m³로 전 세계 생산량의 2.0%임. 생산량은 2011년 563억 m³에서 2021년에는 793억 m³로 40.9% 증가하였음.
- * 반면 원유 생산량은 2021년 기준 일일 252만 배럴로 전 세계 생산량의 0.3%에 불과함.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LNG 생산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천연가스를 활용한 가스화학 산업의 육성도 추진 중임.
- 현재 카스피해 연안 투르크멘바시 소재 LNG 플랜트에서 LNG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완공된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에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을 생산 중이며, 2019년 6월에는 수도 인근 오바단-데페(Ovadan-Depe) 지역에 가스액화(Gas-to-Liquid, GTL) 공장을 완공하였음.

[그림 8]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생산 규모 추이

단위: 억 m³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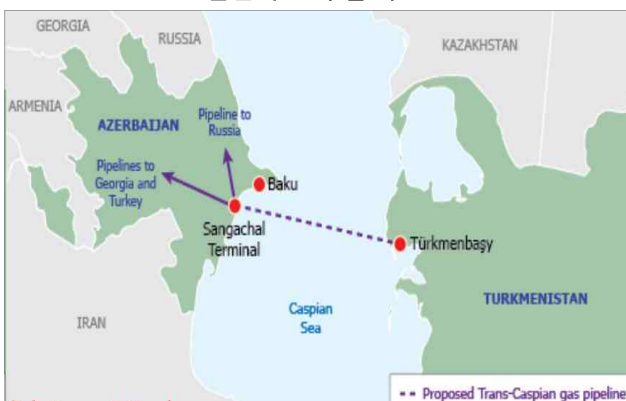
카스피해의 유전 및 가스전 개발과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수출 가능성

- 2020년 1월 아제르바이잔과 카스피해 분쟁 지역에 대한 에너지 자원의 공동개발에 합의한 이후, 향후 이 지역의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 카스피해에 위치한 양국 가스전의 최단 거리는 42해리(77.8k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 카스피해 해상에는 미개발된 유전과 가스전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23년에 2개의 유가스전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중장기적으로 카스피해를 횡단하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아제르바이잔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 가스관 건설이 계획되고 있음.

성장잠재력

- 향후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이 건설되고, 2018년에 완공된 아제르바이잔에서 터키를 횡단하는 트랜스아나톨리아가스관(TANAP), 아드리아해 횡단 가스관(TAP)과 연결될 경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생산된 가스를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됨.

[그림 9] 카스피해를 통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수출 루트



자료: <http://caspiabarrel.org>

[그림 10] 카스피해 해상에 인접한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 가스전



자료: <https://www.caspianpolicy.org>

정책성과

WTO 정회원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세계무역기구(WTO) 정회원 가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2020년 7월 WTO 총회에서 옵저버 회원국의 지위를 확보한 바 있으며, 2022년 2월 WTO 총회에서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 절차 개시에 합의함. 2023년 5월에는 50여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르크메니스탄의 WTO 가입을 논의하는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되어,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사례에 대한 논의 등 활발한 토론이 진행됨.

국제기구 평가 경제자유화 및 인간개발지수는 근소한 폭으로 개선

- 투르크메니스탄은 2023년 헤리티지 재단이 평가한 경제자유화 지수에서 평가대상 총 176개국 가운데 161위, 아시아-태평양 39개국 가운데 37번째로 낮은 순위에 머물렀음.
- 경제자유화 지수는 법치주의, 재산권, 사법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2022년의 평가대상 177개국 가운데 165위, 아시아-태평양 39개국 가운데 38위에서 2023년에는 순위가 근소하게 상승하였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2021년 UNDP(유엔개발계획)가 평가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의 국가별 순위에서 184개국 가운데 92위를 기록함.
- 국민소득, 교육 수준,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간개발지수에서는 세계 중위권이며, 2020년의 109위(184개국 대상)보다 순위가 다소 상승하였음.

정기 국제항로 운항 재개, 각종 국제행사 유치 등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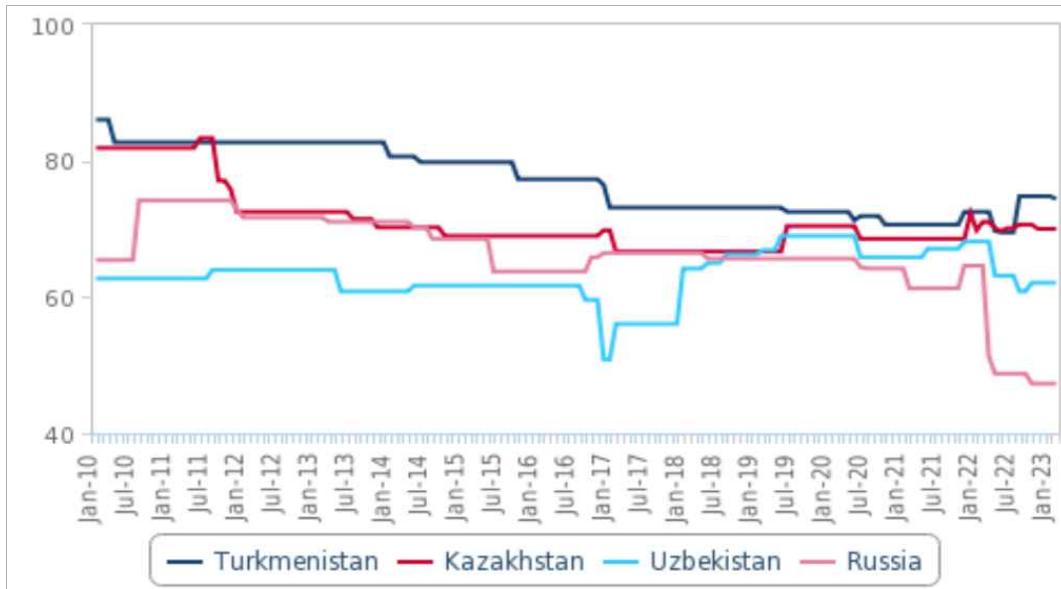
- 국영 항공사인 투르크메니스탄 항공은 2023년 3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국제항로가 중단된 지 3년 만에 영국,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에 정기 국제항로를 재개하였음.
 - 취항 도시는 런던, 베이징, 델리, 알마티 등 각국의 수도이며, 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외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투르크메니스탄은 2017년 실내무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였고, 2021년 11월에는 제15차 경제협력기구(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ECO)*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음.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 ECO는 1985년 이란, 파키스탄, 튀르키예가 설립한 기구로, 현재 이슬람 국가들인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이 가입해 있음.

정치안정

전임 대통령의 장남이 2022년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 정치적 안정 유지

- 2022년 2월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의 사임 후 3월에 실시된 선거를 통해 전 대통령의 장남인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부총리가 73%를 득표하여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됨.
-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은 2021년 3월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바 있으며, 현재도 상원의원 성격인 "People's Council of Turkmenistan" 의장직을 맡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의회는 다당제로, 여당인 민주당(Democratic Party of Turkmenistan)과 함께 산업기업가당(Party of Industrialists and Entrepreneurs), 농업당(Agrarian Party)의 3개 정당이 존재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에서 정당들 간의 상호 의견대립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Fitch의 자료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단기 정치적 리스크 측면에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림 1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리스크 비교



자료: Fitch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리스크)

사회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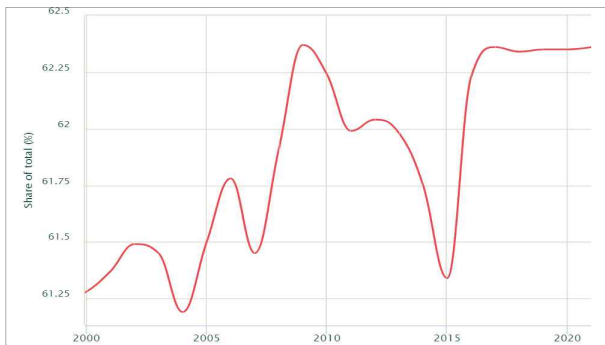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다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하위권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22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평가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평가대상 180개국 가운데 167위를 기록함.
- 이는 2012년의 170위(176개국 대상), 2021년의 169위(180개국 대상)보다는 다소 상승한 순위이나, 여전히 부패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빈부격차 등 사회적 불평등 점차 확대 추세

- 세계 각국의 빈부격차를 조사하는 “세계 부와 소득 데이터베이스(WID world)” 자료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의 빈부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WID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계층이 전체 부(wealth)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의 61.25%에서 2021년에는 62.4%로, 상위 10% 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48.1%에서 2020년에는 48.9%로 각각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앙아시아 주요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의 비교에서 상위 10% 계층이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 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즈베키스탄보다는 낮고 카자흐스탄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12] 투르크메니스탄 전체 부(wealth)에서 상위 10%의 비중 추이(200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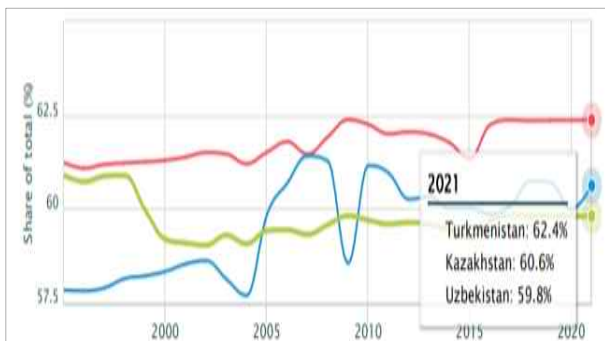
자료: <https://wid.world>

[그림 13] 투르크메니스탄 전체 소득에서 상위 10%의 비중 추이(200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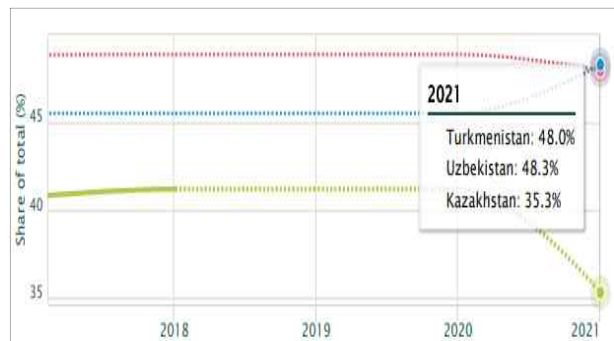
자료: <https://wid.world>

[그림 14] 전체 부에서 상위 10%의 비중 비교



자료: <https://wid.world>

[그림 15] 전체 소득에서 상위 10%의 비중 비교



자료: <https://wid.world>

국제관계

러시아와 운송망 및 에너지 등 다양한 경제협력 추진

-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와 협력하여 국제 남북 운송회랑(INSTC, 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의 물류운송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INSTC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란을 연결하는 총연장 7,200km의 운송망으로, 선박, 철도 및 도로 운송을 통해 발트해부터 카스피해를 거쳐 인도양-페르시아만을 남북으로 연결

-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철도 당국은 2023년 4월 3국을 연계하는 물류망을 구축하고 물류운송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함. 이 사업은 INSTC의 동부 지선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그림 16] 국제 남북 운송회랑(INSTC)



자료: <https://astanatimes.com>

- 러시아 Lukoil사는 카스피해의 투르크메니스탄 도스트럭(Dostluk) 유가스전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러시아 Tatneft사는 투르크메니스탄 유전 개발에 기술을 지원하고 있음.
- 2016년 이후 중단된 러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산 천연가스 수입이 2020년 재개된 이후 양국 간 천연가스 교역이 확대되고 있음.
- 2022년 10월 기준 190개의 러시아 기업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에 의해 2023년 1월 기준 35억 달러 규모의 20개 투자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정치·경제 협력 확대 추진

-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2023년 5월 중국 시안에서 개최된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중국과 양자간 정상회담을 개최, 에너지, 기술, 세관 등의 부문 협력 추진과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협력에 합의하였음.
-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23년 1월에도 중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인프라 개발, 에너지, 교역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논의한 바 있음.

국제관계

카자흐스탄과 무역, 물류 관련 협력 확대 추진

- 2022년 10월 CIS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였음.
- 양국 정상은 카자흐스탄의 대 투르크메니스탄 수출품목 다변화, 투르크메니스탄산 가스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수출, 카스피해 연안의 양국 항만들 간 물류망 구축, 국경 도시 간 도로 건설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또한 양국은 2023~24년에 양국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아제르바이잔과 카스피해에서의 운송 물류망, 조선 분야 협력 확대 추진

-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튀르키예로 연결되는 트랜스카스피해 운송망(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 TITR)의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양국은 2023년 1월 카스피해상 화물선 2척의 공동 운항, 바쿠-투르크멘바시 항만 간 정기 화물운송 개시 등에 합의하였음.

[그림 17] 트랜스카스피해 운송망



자료: <https://www.silkroadbriefing.com>

- 또한 양국은 카스피해에서의 조선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2023년 3월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조선소와 투르크메니스탄의 발칸 조선소는 투르크멘바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선소 기술, 인프라 등의 부문에서의 협력을 논의함.

외채상환태도

OECD ECA에 대한 연체비율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연체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은 수준

- 2022년 말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인수승인 잔액은 총 37억 3,020만 달러 (단기 300만 달러, 중장기 37억 2,72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중장기 250만 달러가 연체되어 2021년 말(역시 중장기 250만 달러 연체)에서 변동이 없음. 인수승인 잔액이 감소함에 따라 연체비율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연체규모는 여전히 크지 않은 수준임.

* 연체비율: 0.05%(‘21.6월) → 0.05%(‘21.12월) → 0.06%(‘22.12월)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2023.01)	7등급(2022.01)
Fitch	B+(2022.02)	B+(2021.08)

OECD는 7등급, Fitch는 B+등급을 각각 부여 및 유지 중

- 2020년 OECD CRE 회의에서 경제지표의 신뢰성 미흡과 정책에서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등급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3년 6월 현재까지 등급이 유지되고 있음.
- 국제신용평가 3사는 2020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Fitch는 2021년 8월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B+ 등급을 부여한 바 있음. Fitch는 2023년 2월에도 기존 B+ 등급을 유지하며, 에너지 국제가격의 상승세에 따른 수출증가를 근거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에 대해 '안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대 중국 가스관 연결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노선을 확보하여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2022년에는 세계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국영 에너지 기업의 수출 증대로 재정수지는 2021~22년 연속 흑자를 지속하고, 경상수지는 2022년에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 수출의 증가에 따라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다소 하락하였으며, 외환보유액이 월평균수입액의 15.7개월분 규모로 안정적인 외채상환능력 지표가 유지됨.
- 2022년 2월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의 사임 후 그의 장남인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가 2022년 3월 조기 대선에서 승리,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지속됨.